

## 특집 I

### 창간1주년에 부쳐...

정보화 사회의  
그들

# 여성들에 대한 기초적 교육을...



權 英 子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연구실장)

**우리**는 지금 정보화사회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그냥 서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조금씩 다 가서고 있다. 날마다 쏟아져나오는 최신정보들은 이미 첨단기술에 의해 수집·처리·보관되고 있으며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각종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등에서 터미널을 두드려 필요한 정보를 즉시 찾아내고 활용하는 모습을 접할 때마다 참으로 세상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감탄을 내뱉게 된다.

그러면서도 첨단 기기들을 가까이 접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의 유용성을 깨닫고, 그것을 자기의 생활에 활용해 보려는 적극적 의지가 보이

지 않음을 볼 때는 적잖이 염려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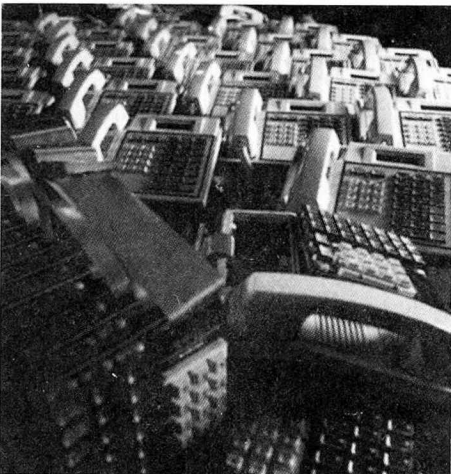
앞으로의 사회는 정보가 부의 가치척도로써 각자가 정보를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따라 역할과 지위에 변화를 가져 오게된다. 따라서 정보로부터의 소외는 곧 사회로부터의 소외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우리가 신문이나 잡지를 통하여 그날 그날의 정보를 접할 때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로부터 소외되었던 것처럼.

컴퓨터라는 기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첨단기기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로부터 멀리 있게 된다.

정보화사회에서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다. 바꾸어 말하면 고도의 기기를 조작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정보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할 만큼 기계와 친해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특히 여성들은 이런 첨단기기에 약하다. 과학이나 기술은 여성과 썩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성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정보화사회에서의 주체적인 발전을 이루기가 어렵다. 첨단과학과 좀더 친밀할 수 있는 여성교육이 이루어져야겠다.



**첨단 기기들을 가까이 접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의 유용성을 깨닫고, 그것을 자기의  
생활에 활용해 보려는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음을 볼 때는 적잖이 염려가 된다**